

不況打開과 科學技術革新

白 永 勳 博士

〈韓國産業開發研究所長〉



※ 이 글은 科總 第10回 定期總會에서 特別 講演 된 內容을 拔萃 收錄한것입니다,

—〈편집부〉—

〈序 言〉

周知하는 바와 같이 每日 政府 一角에서 各 研究機關에서 從事하는이들이나 經濟學 教授 두 사람만 모이면 現在 當面하고 있는 展望되는 韓國 經濟問題를 걱정하고 있다, 昨年. 에너지 쇼크 이후 韓國經濟의 方向이 現在 잡히지 못하고 있다. 大概 60年代를 機軸으로한 韓國經濟의 方向이라는것은 쉽게 말해서 輸出 主導型 開發計劃 主導型,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底力을 通해서 重化學工業 主導型, 등 目標를 세우고 왔었다. 이와 같은形態는 民間의 主導보다는 政府의 主導力으로, 政府指向的 指導方向에서 오늘 날의 經濟成長이 이루어져 왔다. 더군다나 昨年에는 再昨年の 恐慌을 맞이해서 政府는 重化學工業을 宣言했고 굵직 굵직한 重化學工業計劃을 세워 投資計劃이 具體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刹那에 재작년겨울 에너지 파동을 직감하게

目 次

- ① 世界的 經濟不況과 韓國經濟에 미치는 影響
- ② 韓開經濟의 發展을 爲한 새로운 戰略方向
- ③ 經濟人의 立場에서 본 우리 의 技術問題

되었다.

當初 에너지 파동이 우리나라에 어느程度 만큼 影響을 미칠것인가 이렇듯 저렇듯 말들이 많았으나 具體적으로 우리의 經濟成長 執行에 影響은 없었다.

美國은 美國대로 日本은 日本대로 再昨年서부터 Zero 成長하자, 또는 minus 成長하자는 論難이 많이 있었으나 韓國은 그 影響이없어서 昨年の 우리의 經濟는 그 나름대로 높은 高度의 成長率을 보였다. 昨年에 모든 나라들이 minus 成長率을 보였는데도 우리는 10%의 成長을 해왔다. 그래서 世界的 不況이라고 하는것을 크게 몸소 느낄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研究人들의 잘못도 있었고 政府의 잘못도 있었고 모든 企業人의 잘못도 있었던 것이다. 政府와 研究人들은 우리나라 모든 業界를 勵說했다. 에너지 波動이 오면 原資材 購得難이 올것이고, 에너지波動이 오면 原資材의 價格昂騰이 올것이다.

그렇게되면 인플레이는 10%內外를 넘어 20%~30%의 인플레이현상이 나타날것임으로 政府도 業界를 指導할때 그렇게했고 研究人들도 업계를

지도할때 原資材를 確保하라고 指導했었다. 政府는 不足되는 外貨를 가지고 原資材購得을 적극 支援한다 있다.

그러나 그 후 世界의 原資材 값은 올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價格이 底下되었고 原資材 購得은 더욱 容易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原資材를 購入한 업체들을 資金難에 큰 부담을 질머지게 되었다. 이 작은事實 하나를 보더라도 韓國經濟를 넘겨다 보는 立場에서 우리가 世界經濟를 향한 우리의 知識이 얼마나 貧困하였고 我田引水의 狀況이 었는가를 露出하고 있다.

昨年度 原資材 購入에 總體的인 計算을 하여 보면 原綿에서 1億8千萬弗과 原糖에서 2千3百萬弗 등 其他를 합쳐서 4億弗의 原資材를 값이 제일비쌀때 購入한것이다.

이것이 곧 오늘 날 우리에게 問題가 되어있는 國際收支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된 要因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놓고볼때 오늘날 韓國經濟의 成長 座標를 어떻게 再整備 하여야 될것인가 라는 問題點을 갖고 實際 韓國經濟를 論할때 우리에게는 네 가지 딜렘마가 가로 놓이게 된다. 이 네 가지 딜렘마가 서로 영켜서 해결이 안되고 있다.

昨年度 우리의 국민총생산이 (GNP) 130 億弗인데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이 40%, 그리고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40%로서 80%의 貿易 依存度를 指向하게 되었다.

1. 産業構造의 轉換

海外 依存型 經濟成長을 止揚하고 國內依存型 內需依存型, 産業構造體制의 轉換이 提起된다.

이 問題는 理論的 至當性이 있고 그러한 方向으로 가야만 할것은 틀림없으나 그 裏面에 숨어 있는 否定的 要素가 세가지가 있다.

가) 人口 3,200萬의 生存問題

3,200萬 人口의 雇傭業 基盤을 어떻게 構築할 것인가 어떠한 産業을 우리의 産業으로 誘置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나) 基礎 原資材 調達의 問題點

우리는 內需型 産業이든 輸出型 産業이던 간

에 原資材 調達에 있어 國產資材로 代替가 可能한가가 問題이다. 그렇치 못한 우리의 現實은 輸入에 依存해야 된다는 宿命으로 여기에 부딪치는 새로운 輸入負擔을 어떻게 解決할것인가하는 문제다.

다) 우리의 國土는 너무도 비좁다

좁은 國土에 사는 우리는 現在 住宅問題, 公害問題 등 先決問題를 놓고 있으며 이 비좁은 國土에 어떠한 産業을 誘置할것인가. 1人當 國民所得500弗에서 1,000弗로 倍增시킨다고 生覺할때 오늘과 倍增될 來日의 架橋를 어떠한 産業으로 배꿀수 있는가? 우리가 무억구조를 낮춘다고 생각하던 그런 모델은 成立될수 없다. 物量的 측면과 우리가 갖고 있는 基盤與件의 측면이 相馳된다.

2. 雇傭 人口問題

今年부터 人口 增加率은 2.7%이며 雇傭人 증가율은 4.2%가 된다. 換言하면 6. 25 動亂以後 20餘年間, 出生한자가 今年부터 就業人口에 加重된다. 그래서 해 마다 4.2%~4.5%의 고용인수가 늘어남으로 200萬 就業人口의 5% 즉 40萬餘名이 늘어나게 되므로 現在의 失業者 5%와 합하면 불황으로 오는 失業者와 새로운 失業者가 200萬~250萬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세 층의 完全 失業者를 추산하면 全體人口의 10~15%가 된다. 그러면 이같은 失業者의 雇傭問題의 對策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이러한 數字는 政府도 公式的으로 밝힐수 없는 실정이다.

3. 인플레이션 物價上昇問題

先進國은 이미 物價安定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先進國의 物價安定이 이룩된 마당에 우리는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것인가. 物價上昇을 막는길은 物動量으로서 市場技能을 通해서만 막을수 있다.

政府는 인플레이션을 行政主導的으로 막으려 하며 行政指導的으로 다스리려한다. 그러기 때문에 物價構造는 體系가 더욱 더 어두운 地下로 숨어 들어가며 結局은 투기가 나오고 還物思想이 나오게 되었다. 더군다나 食糧問題가 크다.

昨年에 우리나라는 8億弗의 食糧을 輸入했다. 8億弗의 食糧輸入負擔問題를 어떻게 充足할것인가에 對한 確固한 비존이 서야만 될것이다. 인플레이라고 하는것은 物動量의 貳 반침이없을때 활약하게 되는것이다. 인플레이 문제를 어떻게 강구하고 방지책을 세울것인가 여기에 死活 이결려 있는것이다 .

4. 國際收支의 壓力을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昨年 1年間에 18億의 國際收支에 赤字를 가져왔다. 總 輸出額 47億弗에서 國際收支 經常赤字 18億弗 이라면 約 40%가 된다, 政府에서는 今年 輸出赤字를 約 12億弗로 推산 하고있으나 18億弗以上 上廻할것으로 본다. 今年度 約20억弗赤字로보고 來年度 20億弗赤字로 보아 合해서 40億弗의 국제수지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같은 莫大한 “갭”을 어떻게 메꿀것인가. 이것을 메꾸는 方法은 하나 밖에 없다. 새로운 外資도입을 가져 와야 한다. 새로운 外資도입으로 낡은 外資導入을 메꾸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조리의 반복이다. 부조리는 새로운 不條理를 막는다는 경제법칙이 있다. 海外國家 投資者들이 既投資한 果實의 送金을 截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國際收支負擔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資本去來의 國際收支 逆潮現狀이 誘發되는것이다. 마치 Bankrupt 課程이 된다. 國際收支赤字를 막기爲해 輸入을 抑制하고 節約하며 外資를 더 導入하고 積極의 手段, 소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政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있다. 이렇게 高度의 成長下에서 거의 걸 잡을수없는 단계로 홀으려졌다.

항상 問題解決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란 結論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킬수 없는 實情이다.

A를 解決함으로 B도 解決하고 B를 희생시켜 C를 解決하는 相關관계가 있다.

今般 本人은 다행이 歐羅巴에 韓國의 市場이 進出할수 있겠느냐 하는 判斷을 얻기爲해 5個國을 巡訪했었다.

여러나라에 韓國商社들이 直接 세일즈맨을 보내고 있었다. 따라서 韓國은 輸出 伸張에 포텐살이 充分이 있다고 判斷하게 되었다. 다만 問題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제까지의 市場이 아니라, 한 단계 앞질러 비껴서 깊이 들어가는 市場이있는데 이것은 세일즈맨으로서는 모르는 것이다. 세일즈맨 들은 商品을 파는데는 甞장한 知慧와 技法을 갖고 있으나 새로운 製品 새로운 高級品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세일즈맨의 技能은 아니다. 그 市場이 있는데 아무도 아직 礎치 못하고 있다.

韓國經濟를 넘겨다 볼때 必야흐로 韓國經濟는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많은 教訓을 배웠다. 우리는 高度成長의 그늘에서 자라가는 知慧의 蓄積이 지나간波動을 通하여 甞장한 教訓을 주었다고 生覺한다. 이제야 말로 韓國經濟가 開發의 段階를 넘어 發展의 段階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産業哲學이 나와야겠고 새로운 部分에서의 物量의 비약을 總和시켜 새로운 發展哲學이 나와서 새로운 틀에다 집어 넣는 作業이 남아있다.

나는 이번 獨逸에 가서 各國 學者와 만나 지내는 동안에 獨逸에 對한 再評價를 해볼 必要가 있다고 느꼈다.

獨逸은 오늘날 모든 EEC國家中 가장 強한 나라이다. 내가 獨逸에 留學當時 貨幣價는 1\$當 4마르크 60페니 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1\$에 2마르크 20페니가 되었다. 切半이 引上된 것이다. 그 引上된 要因이 무엇이냐고 여러 機關에 가서 質問했던바 그對答은 모두 두가지로 一致했다.

첫째 : 經濟 組織面에서 勞使의 協力이 잘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 技術力으로서 分業化와 專門化의 基盤이 서있다는 것이다.

위에 두가지 答辨은 곧 國際競爭力이 있다는 말이다. 國際 경쟁력 이라고 하는것은 經濟的 用語로서 그內容에는

① 勞動生産的이고 ② 原價切下의이며 ③ 品質 向上의인 것이다.

換言하면 勞動生産力과 原價切下와 品質 向上

으로서 생기는 國際商品 競爭力은 各國間의 경쟁의 벽을 뚫고 나가는 힘이다. 그힘이 곧 勞使의 協力이며 크락스만쉽 이라는것을 再 發見했다.

이같은 이야기를 政府에 이야기해도 現在우리의 價値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思考로는 도저히 이야기가 通할수 없다.

우리가 必要로 하는것은 개발이고 건설이며 이같은 상황이기때문에 경제 조직면 에있어서의 力을 갖인 협동하는 체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실로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는 技術者도 科學者도 學者도 마찬가지이다.

韓國經濟를 걱정 하면서도 본 바탕의 문제를 갖고 對話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5. 技術에 關한 問題點

國策技術의 課題와 方向이 무엇인가.

우리의 技術은 一人業績主義이고 우리의 技術은 一人技術主義이고 나 아니면 못한다는 技術者들이 너무 많다.

우리의 技術者는 體系가 없다. 元老級教授와 젊은 새 博士와 對話가 成立되지 않는다. 그분들의 知識은 낡은 技術이고 새로운 知識은 有利한 技術이다. 모든 사람이 다 水平의으로 핵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우리의 國策技術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方向으로 나갈 것인가 문제이다. 國策技術의 方向은

① 市場能力을 가져야 되고 經營能力을 가져야 되고 應用能力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課題가 없는 技術은 마치 꿈인것 처럼 비약 기술의 상징인것 처럼 強要되고 있다. 어느 博士가 어디서 무슨 研究를 했기때문에 무슨 연구소를 만들고 예산을 따고 所長이 되고 하여 핵 으로서 발전해서는 안되겠다.

이런것들이 重點化되고 協同化되어 領導되는 技術課題가 系統化 되어야 한다고 본다. 技術自體 하나 하나가 重要한것이 아니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나의 과정이 한 통로를 거쳐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차근 차근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섬유 시설은 韓國 全體投資施設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모든 施設이 獨逸 日本 等の 機械施設로 채워져 있다는 엄청난 事實을 生覺해 보자. 이런 施設의 國產化方法은 있다고도한다. 어디서 얼마만큼 國產化가 可能한가 모든 분야가 協同화해서 이룩 되어야 할것이다. 지금은 一人業績主義 時代가 아니다. 한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그런 時代가 아니다. 그러한 時代를 爲해서 우리국민이 갖인 한국경제와 3,200 만의生活은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 協同化時代를 이루어 經濟의 協同化 產業의 協同化 技術의 協同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研究 課題를 놓고 자칫 잘못하면 흔히 先進國 學者들이 말하는 開發途上 國家에 開發沮害要因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뷰우로 클랏스」(BURO KRACATS)
(관료주의)

둘째 「테크노 클랏스」(Techno- ")
셋째 「코로스 클랏스」가 있는데 이 테크노 클랏스하면 經濟學者들이 말하는 무엇을 아는체하고 메끄로 모우드를 따지고 하는 이러한 狀況들이다.

韓國經濟에 「메끄로 모우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韓國經濟의 發展을 爲해서는 깊은 哲學이 再發見되어서 過去 우리 겨레들이 갖고 있었던 깊은 思想과 哲學을 우리가 充分히 利用함으로 80% 의 基盤위에다 20%의 技法을 投與해서 韓國經濟의 새로운 座標를 設定해 나가야 할것이다.